

연내 스마트 축사 더 늘린다

농식품부, 600곳 구축엔 전국 1390곳으로 늘어 축산농가 384곳 대상 사전컨설팅 후 2차 사업자 선정

정부가 연내 정보통신기술을 축사에 접목해 거족을 기르는 '스마트 축사'를 최대 422곳 추가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2차 모집에 신청한 축산농가 384곳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축산농가 전업농의 10% 수준인 600곳을 스마트 축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1차로 178곳을 선정해 자동급이기·착유기·폐쇄회로(CC)TV 등 ICT 장비를 보급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 농가 384곳을 대상으로 2~3개월간 축사 여건을 진단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ICT 장비 도입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후에는 장비 사용법과 같은 축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교육한다. 계약·시공 진행 현황, 현장 활용 지원, 도입 효과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600곳중 1차로 선정된 178곳을 제외하면 422곳을 더 지정할 수 있다"며 "2차 사업자를 확정된 후 결원은 3차 모집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422곳을 추가 지정해 정부가 목표로 한 600곳을 달성하면 스마트 축사는 전국 139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스마트 축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펴왔으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 스마트 축사로 전환한 A양돈농가는 모돈(母豚·어미 돼지) 한 마리당 연간 출하 두수가 5%(20→21마리) 가량 증가했고, '상' 등급 출현율은 7.7% 상승했다. 반면 연간 사료요구율은 8.8% 감소했다.

2015년에 스마트 축사로 바꾼 B목장의 연간 착유량(우유를 짜 유출되는 양)은 839.5리터(1)에서 963.6리터로 14.8%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 ICT 장비 도입에 따른 정교한 사양 관리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가능케해 농가에게 소득과 여가 시간을 늘려줄 것"이라며 "향후 질병 관리와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마트 축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여름 침구 보러 오세요 29일 서울 동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다양한 여름 침구들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여름철을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냉감을 유지할 수 있는 여름 침구 20종을 직수입 판매한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김동연 "어려움 겪는 지역·업종, 예비비까지 지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에 예비비까지 활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월 군산은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

해남, 울산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역에는 지난번 발표한 지역대책을 확대·적용하겠다"며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을 추가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력 산업인 조

선·자동차 부품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며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함께 고려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 배려를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되게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11번가, '내가 사는 그집' 이벤트

20·30대를 위한 '집 꾸미기 기획전' 진행

11번가는 MD 추천상품을 모은 공간테마 기획전 '내가 사는 그집 2탄'을 6월3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20~30대 1·2인 가구를 겨냥한 행사다. 디자인에 신경 쓴 가전, 식기,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 라인 '비앤오 플레이'(B&O PLAY)의 무선스피커 '베오플레이 A9'을 정가보다 10% 저렴한 305만1000원에 판매한다. 국내 뱅앤올룹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년간 보증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베오플레이 이어폰 H3와 스피커 A9의 커버를 사면 품으로 증정한다.

식기, 조화 등도 '홈퍼니싱'을 위한 인기 아이템 중 하나다. 프랑스 리빙 브랜드 '바틴잇빙리빙'의 모던 클래식 홈세트 23p는 이번 행사에서 9만9000원에 판매한다. 조화 식물인 '몬스테라 조화나

무'는 2만8900원, '월계수 조화 나무'는 3만9900원, '네코 선인장'은 1만4200~2만1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외에도 ▲11번가·퍼피노 공동기획 원목 가구 '11번가엔(ℓ) 퍼피노유피테르 서재시리즈' 최대 60% 할인 ▲마키&미니마우스 캐릭터를 입힌 '소프시스 어린이/키즈 소파' 할인 등도 준비했다.

한편 '홈퍼니싱'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1월1일~5월27일) 11번가에서는 3년 전(2015년) 같은 기간보다 리모델링 가구 거래액이 390% 증가했다. 집안 베란다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탄 의자, 야외용 테이블 등 아웃도어가구 거래액도 같은 기간 83% 뛰었다. DIY용품은 47%, 조명 32%, 쿠션·방석 등 홈패브릭용품 47%, 데코스티커·선반 등 인테리어 소품 거래액은 각각 18% 늘었다.

/김영태기자

4월 앱 사용 1위는 '구글'

사람들이 4월 한 달 간 가장 많은 시간 사용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의 개발사는 '구글'로 나타났다. 구글은 유튜브, 구글, 크롬 등 총 5개 앱으로 누적 사용시간 313억분을 자랑했다.

29일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은 지난 달 한국 앱 개발사 별로 운영 중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의 사용시간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위는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리, 다음 등 총 73개 앱을 통해 지난 달 누적 305억분의 사용시간을 기록했다.

네이버, 밴드, 네이버 지도 등 총 52개 앱으로 지난 달 누적 사용시간 201억분을 기록한 네이버가 3위를 기록했다. 그 뒤는 삼성전자, 페이스북,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 조사는 와이즈앱이 지난 달 한 달 전국 2억3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을 통해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캠코, 국유재산 총조사 대학생 현장 실습생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달 27일까지 '2018 국유재산 총조사' 대학생 현장 실습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하계 방학기간을 맞이하는 전국 대학생에게 공공기관 업무경험을 제공하고 국유재산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하게 해 향후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3~5명의 팀을 구성한 대학생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현장 실습생 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표창과 총 16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부상(드론)을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팀을 구성해 국유재산 총조사 온라인 홈페이지(<https://land-kamco.saramin.co.kr>)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6월말 국유재산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대학생은 7월 초 국유재산 총조사 관련 업무 교육을 받은 후 7월 중순부터 약 1개월간 본격적인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문창용 사장은 "캠코는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실습이 참여 대학생에게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총조사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